



“설맞이 기관무료점검서비스” 실시



▲ 무료점검서비스 실시(강원지부), 강원 삼척항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1월 23일~2월 5일까지 전국 17개 지부별로 관내 주요 항·포구에서 “설맞이 기관 무료점검서비스”를 안전기획팀이 주관하여 실시하였다.

안전기획팀은 2005년부터 매년 설·추석맞이 및 어한기 등을 이용하여 기관무료점검서비스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 설맞이 기관무료점검서비스는 어선 및 유·도선을 대상으로 기관 관련 안전 설비 전반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 점검결과 엔진오일, 부동액, 선등 등 교체가 필요한 일부 소모성 품목에

대해서는 공단이 무료지원을 해주고 부품 교환 등이 필요한 경우 선주에게 교환 필요성 등을 권고해 정비토록 하였다.

한편, 안전기획팀은 이번 무료점검 서비스가 해양사고 저감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하대와 “한국형 어선선형 개발에 관한 연구” 공동추진

기술연구원은 지난 1월 17일 인하대학교와 “저항성능이 우수한 한국형 어선선형 개발에 관한 연구”를 공동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어선선형 개발 연구”는 작년 8월 인하대학교와 공단의 “상호교류협력 협정” 체결에 따른 기술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최근 연안 어족자원 감소 및 유류비 인상에 따른 출어경비 증가 등으로 인해 어업인들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우수한 한국형 어선선형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는 연구사업이며, 다가오는 3월 1일부터 6개월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행하는 대학교수 국내 교류 연구지원 계획에 의거 인하대학교 기계공학부(이영길 교수)와 공동추진하게 된다.

한편, 기술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인하대학교와 기술협력체제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그동안 공단이 수행해온 선형개발관련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어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박계산시스템(KST-SHIP 시스템) 개발

기술연구원은 지난해 자체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선박계산시스템(KST-SHIP 시스템)을 관련 업계 등에 널리 보급키로 하였다.

이번에 개발·보급키로 한 선박계산시스템은 선박의 설계에 필요한 각종 계산을 위한 전산시스템으로서, 현재 중소형 조선소 및 설계업체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CASHIP을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한 것이며 특히, 선박안전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을 적용 받는 길이 24미터 미만 선박에 대한 계산프로그램을 추가한 것이다.

한편, 기술연구원은 이번에 개발한 “KST-SHIP 시스템”을 최소한의 개발비용으로 관련 업계에 보급할 계획이며,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알제리 KOICA 『선박안전성 제고사업』 등을 통하여 해외에도 적극 보급할 예정이다.

태안지역 주민돕기 지원활동 나서

김성규 이사장의 임직원 14명은 지난 1월 31일~2월 1일 양일간에 걸쳐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소재 송현어촌계를 방문하고 앞으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방문은 해양수산부의 『태안지역 1사1촌사업 활성화 지원대책』에 따라 유조선 유류오염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태안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써, 이번 방문에서는 첫날 송현어촌계내 주민민박시설 이용에 이어, 둘째날에는 어촌계 회관에서 마을 주민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과 송현어촌계와 자매결연 협정체결식을 갖고 공단이 준비한 위문품 전달과 마을 주민이 준비한 간단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활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김성규 이사장은 자매결연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자매결연 체결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임을 전제한 뒤 앞으로 공단이 실시하는 연찬회, M/T 등 각종 행사시 어촌계내 민박시설 이용은 물론 각종 봉사활동 실시와 마을 농특산물 적극 구매, 어촌계 주민 본부 초청 행사 추진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 송현어촌계와 자매결연 체결



▲ 어촌계회관에서 열린 조출한 다과회 전경